



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

KOEMA NEWS

“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& Korea Power-Gen 2004” 성황리에 폐막

국내 전력IT산업의 수출촉진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「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& Korea Power-Gen 2004」가 지난 11월 5일(금) 모든 행사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되었다.

지난 '94년 제1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(Seoul International Electric Fair; SIEF)을 개최한 이후, 올해로 제9 회째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전력에너지 전문미디어 그룹인 PennWell과의 공동개최를 통해

국내외 각종 첨단 전력기자재의 비교전시 뿐만 아니라 첨단 전력기술 동향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적인 “Conference & Exposition” 국제종합전으로 성장·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, 11. 2(화) ~ 5(금)까지 4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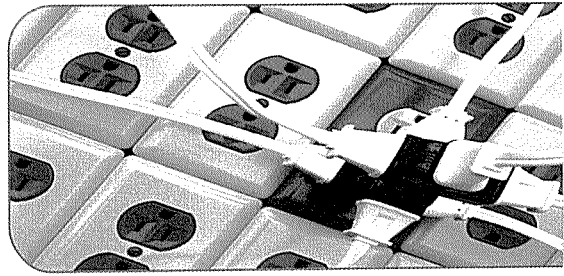
미국(Dupont), 영국(Alstom), 일본(Kom&s), 대만(K.S Terminals), 호주(Hytec, Clipsal) 등 해외 17개 30부스를 포함, 현대중공업, 효성 등 국내 중전기 종합메이커와 함께

총 11개국 139개사 356부스로 지난해에 비해 20% 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로

약 8천명의 관람객이 참관하고 약 7천만불 상당의 수출상담이 성사되어 국내 내수부진에 따른 업계의 해외진출과 기술개발 촉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.

이번 전시회는 Global Market을 주도하고 있는 첨단 IT기술과 전통산업이 융화된 디지털 제품 및 신소재 부품과 소형·경량화된 제품이 대거 출품되어 전력IT산업의 기술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.

부대행사로는 전기산업 유공자 포상 및 기념 리셉션, 일본 전력회사 구매관계자 초청 수출상담회,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전, 송·배전 분야 「국내외 신기술 발표 Conference」를 개최하고, 각종 전기관련 유관기관이 방한·진행된 다양한 부대행사로 종합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.



KOEMA NEWS

- 중국전기공업회(CEEIA) 양계명(楊啓明) 비서장이 양국의 전기분야에 대한 상호업무협정(MOU) 조인식을 거행하고, 양 회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키로 하였고
- 아시아 전기제조업단체 연합회 발족을 위해 각 단체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연말경 공식적으로 본 연합회의 창설을 제의, 내년 3월중 발족할 예정으로 KOEMA(한국), TEEMA(대만), TEEAM(말레이시아), IEEMA(인도), JEMA(일본), APP(인도네시아), CEEIA(중국) 등 7개 단체

로 구성된다.

향후, 국내 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유사전사회 동시개최를 통한 대형화, 국제화에 부응하고자 2005년 10월 11일부터 한국전자전(KES)과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(SIEF)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(KINTEX)에서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.

(문의처 :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)

전기산업 수출유공자 시상식 거행

「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& Korea Power-Gen 2004」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수출산업화에 공로가 큰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, 김준철 진흥회장 등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컨티넨탈(2층 오키드)에서 전기분야 수출유공자 포상식을 거행하였다.

영예의 대통령 표창에는 ▶영화산업전기 공호영 대표이사 와 선도전기 김방규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▶ 국무총리 표창에는 신영순(현대중공업 부장), 김희중(LG산전 부장), 신태용(비츠로테크 상무이사) ▶산업자원부

장관 표창에는 옥태호(효성 부장), 강동식(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), 김치영(한국전력공사 부장), 박헌일(케이피일렉트릭 부장), 백성규(산일전기 부장) ▶ 중소기업청장 표창에는 이성하(씨티이텍 대표이사), 김인유(여기로테크 차장), 최태성(삼화EOCR 과장), 정병욱(삼동 팀장), 박동용(피엔씨 테크 차장) ▶진흥회장 표창에는 이창형(이앤아이 이사), 문승룡(남성기업사 부장), 이영철(한국전기연구원 책임기사), 조수연(성원전기공업 차장), 엄주현(씨엠파트너 차장), 박진석(동우전기공업 사원), 김영복(일진전기 주임) 등이 각각 수 상했다.

(문의처 : 사업지원실 통상전시팀)

중전기기 대 · 중소기업 협력위원회 출범

지난 11월 10(수) COEX 인터컨티넨탈(30층 비즈니스 룸)에서 「중전기기 대 · 중소기업 협력위원회」출범식을 갖고, 한국 전력공사 한준호 사장과 전기진흥회 김준철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서 선출하였다.

이번 협력위는 효성, 현대중공업, LG산전, 일진전기 등 6개 대기업과 대한트랜스, 성원전기공업 등 17개 중소기업 대 표, 한국전기산업진흥회,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기연구원,

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총 27개 사로 구성되어 운영되며

특히, 중전기기 생산량의 40%를 납품받고 있는 한전의 참 여로 동반 해외진출 협력 및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 출활성화와 원가절감 등 실질적인 협력 및 중소기업체의 경 쟁력 강화가 기대된다.

(문의:사업지원실 기술진흥팀)